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미산 쇠고기 3不 운동' 확산 결의

지난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한·미 FTA 저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축산관련 단체 등을 비롯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의 허술한 광우병 시스템 및 한국 검역시스템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지침을 발표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3不(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실천

서약서를 체결했다.

▣ 미산쇠고기 검역설명회 무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진행키로 한 검역설명회 역시 축산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1월 16일 오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 지원에서 실시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자로 국내에 도착한 미국의 '크릭스톤 팜스'가 도축·가공한 쇠고기 수입제품을 대

‘미산 쇠고기 3不 운동’

▶ 지난 11월 10일 축산관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지침을 발표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3不(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상으로 공개적 관능 및 이물검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한우협회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개봉 및 절단검사와 해동검사 등을 지켜본 후 “관능검사 및 X-ray 투시 등의 방법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검사과정 공개는 미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참관단체들은 또한 “뿔조각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데 한국 정부가 동의한 마당에 X-ray를 동원한 검사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의하는 한편 “보호장비가 마련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반발로 고성이가 오는 속에 검역원 관계자들은 X-ray 투시방법 시연 도중 설명회를 중단했다.

■ 검역관련 제도 조건도 개정해야

한편 이날 오전 검역현장을 점검방문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원자력법의 방사선 검사규정 상 식육은 해당품목이 아니다. X-ray 투시법을 이용하기 위한 관련제도 조차 마련돼 있지 못한 상태인데, 합법적인 조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참관단체 회원들은 한국정부가 연골과 흉골, 뿔조각은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지난 11월 9일 최종적으로 동의한 점에 대해 “미국의 도축장들은 작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뿔조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합의를 해준 것은 향후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내 반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준 것과 같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3不 운동 적극 전개할 것

한우협회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운동본부’ 등은 지난 11월 16일 미 농무부 척 램버트 부차관보의 방한이 갈비까지 수입토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는 한편 ‘안사고, 안팔고, 안먹는’ 미산쇠고기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 한 관계자는 “이 운동은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정육점과 식당주 등 1만 명을 상대로 서약서를 받고, 미국산쇠고기를 구매해 폐기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금운동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